

김·툇 등 해조류 풍부하고 맛 일품...청년들 돌아오는 어촌



진도 굴포마을은 바다와 비옥한 토지가 주는 풍요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작은 어촌마을이다. 마을 주택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논·밭과 마을 앞 굴포나루(굴포항)의 모습이 아름답다.

삼별초 배중손 장군 최후 맞은 역사 아픔 간직 비옥한 토지에 인심 후하고 남도의情有 고사리와 함께 푹 우려낸 '졸복탕' 숙취해소 탁월

아무 것도 없는 적막함이 오히려 이 마을을 빛나게 한다. 흔한 카페도, 군것질거리를 접어들 구멍가게도 없었다. 지나가는 주민조차 몇 없는 작은 어촌마을. 고요한 굴포나루를 걷는 게 즐거웠고, 동그리니 안아 들어줬던 '졸복탕' 한 그릇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

진도군 임회면의 '굴포마을'은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진도라는 섬 자체가 그렇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후백제의 군사들을 진도에서 격파했고, 원나라(몽골)에 항전한 삼별초 배중손 장군이 최후를 맞은 곳이 굴포마을이기도 하다.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도 진도는 왜군의 모진 침략을 견뎌야 했다. 임진왜란 당시 전략상 요충지인 진도에 상륙한 왜군은 약탈과 살인을 일삼았다.

진도는 예부터 유배지로 알려져 있다. 진도는 다른 섬들과 다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많고 섬 주변 수산물도 풍부했다. 유배를 당했다고 해도 다시 관직에 오르는 이들은 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뱃길, 섬놈이라는 천시에 온갖 고초를 겪었다.

각종 전란과 양반들의 전횡에 이곳의 사람들은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다. 남정네나 아녀자나 전쟁의 상처를 피해갈 수 없었다. 그렇게 쌓인 슬픔은 한 맺힌 '창'(唄)과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씻김굿'으로 승화됐다.

굴포마을 역시 동쪽과 남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지역으로 토지도 비옥하다. 마을 주민들은 주로 툇과 미역, 김양식 등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사도 짓고 있다. 대파와 볍동, 월동배추가 주작물이다.

'굴포'라는 마을의 이름도 일제시대 때 붙여졌다고 한다. 일본군은 마을 뒷산에 굴을 파놓았는데, 갯포기에 굴이 파여 있다는 뜻에서 굴포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됐다고 전해진다.

후삼국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수세기

에 걸친 한을 품고 있지만 주민들에게선 그런 모습은 볼 수 없다. 낮은 이방인에게도 살갑게 말을 건네주고, 음식도 후하게 내준다. 비옥함이 주는 넉넉한 남도의 정이다.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것이 '배중손 사당'이다. 배중손은 삼별초의 지휘관이었던 장군으로, 아별초지유(夜別抄遺孀)들을 포섭해 1270년 삼별초 항쟁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진도로 남진한 후 진도정권을 유지하는 동안 수령으로 추대됐다.

당시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강렬하게 저항했던 삼별초는 정부 수립 3일 후 진도로 항전의 거점을 옮긴다. 진도에 용장 산성을 만들고 진도를 황도(皇都)라 부르며 장기항전을 벌였다.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의 공격을 수차례 버텨내던 삼별초는 1271년 5월 대군을 이끌고 출동한 여몽연합군에게 결국 패한다. 이때 배중손도 굴포마을 인근에서 전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중손 사당에는 삼별초군을 호령하던 여몽연합군과 대항하던 배중손 장군의 동상이 근엄하게 서있다. 굴포항을 바라보며 서있는 배 장군의 동상 옆에는 늙름하게 뻗은 소나무 한 그루가 멋들어진 채 서 있다.

굴포마을을 방문하면 빼놓지 말고 먹어야 할 음식이 또 있다. 굴포나루(굴포항)에 있는 '굴포식당'이다. 이 식당은 '졸복탕' 전문점이다. 음식점은 허름하다. 음식 접인지 동네 구멍가게인지 정체를 모를 정도다. 작은 복어인 졸복(졸복)을 우려낸 '졸복탕'만 팔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서는 이름난 맛집이다.

물건을 파는 공간과 주인이 거주하는 방이 떨어져있다. 이 주인이 살던 방들이 곧 손님이 있는 공간이다. 예전 가족들이 동그리니 둘러 앉아 식사를 하던, 꽃무늬가 화려하게 새겨진 밥상이 놓인다. 그 위로 온갖 젓갈과 각종 김치 등 밑반찬이 깔린다. 탕도 탕이지만 이 반찬들의 맛이 일품



물이 빠진 간조에 맞춰 굴포나루 갯벌에서 주민이 낙지를 잡고 있다. 굴포마을 인근 바다에서는 낙지와 졸복, 간재미 등 다양한 어종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굴포마을 주민들은 바다와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감사함을 품고 살고 있다. 마을 인근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를 말리는 모습이 소박한 어촌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다. 진도 주민들의 밥상, 남도 서민들의 밥상을 짚자면 딱 이 집의 한상을 꼽고 싶을 정도다.

반찬을 맛보느라 밥 반공기를 비울 무렵 졸복탕이 나온다. 맑은 복지리(복탕)으로 해장을 즐기는 애주가들도 졸복탕을 맛보긴 힘들다. 졸복은 숙취해소에 최고의 음식으로 꼽힌다. 특히, 이 집의 졸복은 주인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 잡아온다. 싱싱함은 말할 것이 없다.

독특하게도 굴포식당의 졸복탕은 맑은 형태의 다른 복탕과 모양새가 다르다. 고사리와 함께 푹 우려낸 이 집의 졸복탕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려냈는지 국물이 보얗게 올라왔다. 여기에 파를 듬뿍 넣어놓은 양념장을 더해주면 시원하고도 칼칼한 졸

복탕을 맛볼 수 있다. 일반 탕과 달리 국물이 진하고 점성이 있어 여죽과 그 형태가 달랐다. 주인장이 내오는 파김치를 곁들였을 때 맛의 정점을 찍는다.

윗마을과 아랫마을인 웃굴포와 아랫굴포를 비롯해 염밭이 있다고 이름이 붙은 염전, 도적들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도적굴, 서당이 있었다고 붙여진 서당굴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승용차

한남IC → 경부고속도로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서영암IC → 호동교차로(하원 방향) → 녹진교차로(진도타워 방향) → 진도군 → 임회면 → 굴포마을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 진도공용터미널(4시간40분) → 진도공용터미널정류장 도보이동(1분) → 팽목, 서망행 버스 승차(36분 이동) → 굴포

마을 정류장 하차 → 굴포마을

▶열차

KTX용산역 → 목포역(2시간15분) → 목포역정류장 200, 1A, 1-2버스 승차(13분 이동) → 버스터미널정류장 하차 →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도보이동(6분) → 진도공용터미널(1시간10분) → 진도공용터미널정류장 도보이동(1분) → 팽목, 서망행 버스 승차(36분 이동) → 굴포마을 정류장 하차 → 굴포마을

"바다와 땅이 주는 넉넉함에 늘 감사한 마음 젊은이들 많아 활력 넘치는 어촌 꿈꾸지요"

김재명 어촌계장

"청년들이 돌아오는 어촌, 활력이 넘치는 어촌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재명(75) 굴포마을 어촌계장은 굴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다. 언제부터 바닷일을 했는지 가능하기도 어렵다. 군에 입대해 군생활을 했던 3년을 제외하고는 늘 바다에서 놀았고, 바다에서 일했다.

김 계장은 "풍요로운 바다와 비옥한 땅이 있는 굴포마을 주민들은 이웃들과 나누고 주고받는 정을 가지고 있다"며 "내 세울 만한 게 없는 마을이지만 따뜻한 마음만큼은 최고다"라고 말했다.

굴포마을 어촌계장은 63가구 200여명으로 이들은 주로 멸치잡이나 툇, 미역, 김을 양식을 하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 인근 바다는 영양염류가 풍부해 김과 툇 등 해조류의 품질은 물론, 맛도 뛰어나다. 최근에는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마을로 돌아오면서는 '밭농사도 제법 이뤄지고 있다. 농촌지역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놓고있던 땅을 청년들이 돌아와 다시 일구면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는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던 청년들이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며 "다른 농어촌마을과



다르게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굴포마을 주민들은 특별한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작은 어촌마을이지만 바다와 땅이 주는 넉넉함에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

김재명 계장은 "우리 주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은 그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는다"며 "굴포마을 김과 툇, 미역을 비롯한 수산물과 농산물 애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